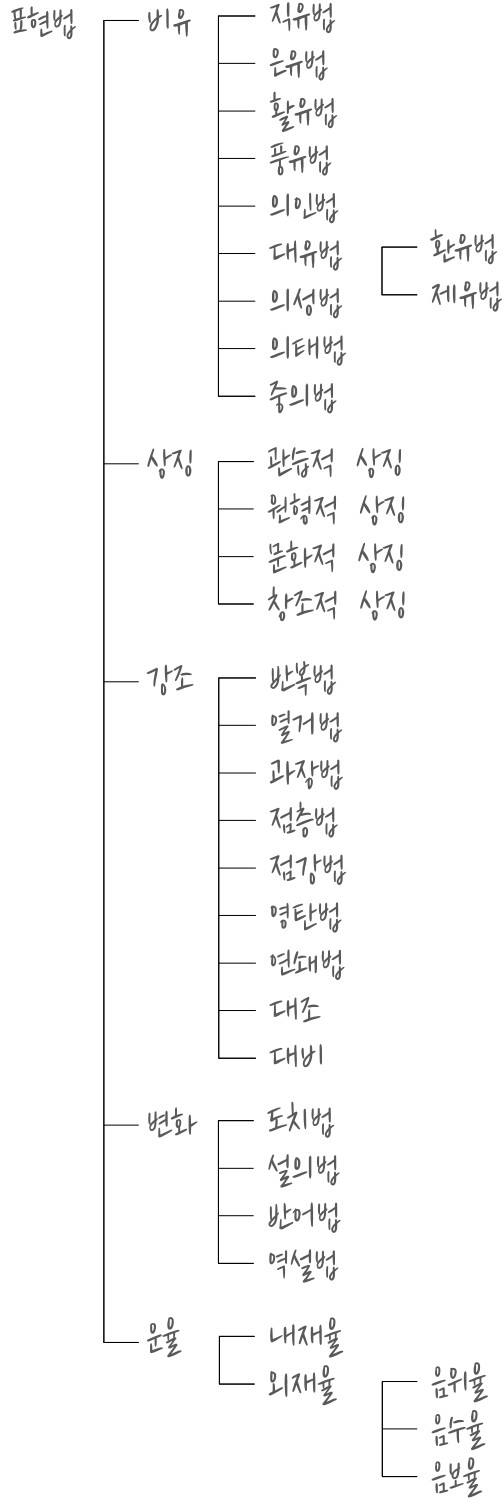


Chapter 2

시적 표현

0 | 개념 한눈에 정리하기



1 | 비유

(1) 비유

어떤 것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설명하는** 표현 방법

-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과의 유사한 속성에 근거하여 표현할 때,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은 (), 빗대어 표현한 대상은 ()이라고 한다.
-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는 ()이 있어야 비유가 성립한다.
-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 선명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할 수 있으며, 추상적인 정서나 사상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선지 빠개기

2015학년도 6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공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2014학년도 수능 (가)는 (나)와 달리 **비유**를 통해 사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드러낸다.

2009학년도 수능 ㉠, ㉡ 모두 대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 원관념 ≙ 보조관념

- 다른 대상(보조관념)을 직접 노출시켜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
- 주 형식: '~같은', '~처럼', '~듯이', '~같이', '~인 양', '~인 듯', '~듯이'

예) 성현이는 꽃처럼 아름답다.

선지 빠개기

2010학년도 수능 [A]와 달리, [B]는 **직유**를 통해 시각적 인상을 구체화한다.

작품 빠개기

2013학년도 고3 9월 평가원

모래 더미처럼 길거리에 쌓이고
건어물집의 푸석한 공기에 풀리다가
기름에 튀겨지고 접시에 담겨졌던 것이다.

- 김기택, 「**멸치**」 -

↳ 원관념인 '멸치'와 보조관념인 '모래 더미'를 '처럼'이라는 연결어로 결합해서 나타냈다.

② (): 원관념 = 보조관념

- 사물의 상태나 움직임을 암시적으로 나타내어 표현하는 방법.

- 주 형식: 'A(원관념)는 B(보조관념)이다.', 'A(의) B', 'A=B'

예) 성현이는 꽃이다. / 성현 꽃이 피었다. / 성현이가 피었다.

작품 빠개기

2005학년도 고3 9월 평가원

삶은 언제나

은총의 돌층계의 어디쯤이다.

사랑도 매양

섭리의 자갈밭의 어디쯤이다.

- 김남조, 「설일」 -

↳ 은유법을 활용해서 '삶'과 '사랑'이라는 추상적 대상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③ ()

- 무생물을 생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

예) 햇살이 성현이를 보고 안긴다.

작품 빠개기

2005학년도 고3 9월 평가원

앞산의 검푸른 숲이 짙은 숨결 뿜어내고

대추나무 우듬지에 한두 개

누르스름한 이파리 생겨날 때

광복절이 어느새 지나가고

머칠 안 남은 여름방학을

아이들이 아쉬워할 때

한낮의 여치 노래 소리보다

저녁의 귀뚜라미 울음소리 더욱 커질 때

가을은 이미 곁에 와 있다

- 김광규, 「때」 -

↳ '앞산의 검푸른 숲'이 '짙은 숨결 뿜어'낸다고 표현하여 숲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④ ()

- 사람이 아닌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표현하는 방법.
- 의인법은 활유법의 일종이다.
- 화자가 어떤 대상물에 감정 이입했을 때, 화자가 어떤 대상물에 말을 건넬 때 의인법으로 본다.

예) 문학아, 사랑한다!

선지 빠개기

2015학년도 수능 [B]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제시하고, <보기>는 자연물의 움직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작품 빠개기

2008학년도 고3 11월 수능

활자는 반짝거리는 하늘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 김수영, 「사령」 -

↳ '활자'가 '자유'를 말한다는 점에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⑤ ()

- 원관념을 완전히 은폐시키고 보조관념만을 드러내 숨겨진 본뜻을 암시하여 표현하는 방법.
- 상대방의 부정적 속성을 직접 이야기하기 곤란한 경우, 우화나 일화, 경구 등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대상을 희화화시킴으로써 대상의 부정적 속성을 풍자한다.

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못나 보인다고 업신여기면 안 된다.)

⑥ ()

- 어떤 사물의 한 부분이나, 그 사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낱말을 빌려서 표현하는 방법.
- ㉓ 환유법: 어떤 하나의 사물 또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 그것과 관계 깊은 다른 사물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방법.

예) 펜은 칼보다 무섭다. (펜: 문화의 힘, 칼: 무력)

㉔ 제유법: 표현하고자 하는 사물의 일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

예)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들: 조국의 영토 중 일부)

⑦ ()

- 실감 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물의 음향을 그와 가까운 의성어로 표현하는 방법.

예) 피꼬리는 피꿀피꿀

⑧ ()

- 실감 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물의 상태나 동작을 그와 가까운 의태어로 표현하는 방법.

예) 큰 구렁이가 굼실굼실 기어가듯 타 들어가는 논밭 두렁

⑨ ()

- 한 단어나 문장에 둘 이상의 뜻을 포함시켜 표현하는 방법.

예)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한하노라 (수양산: 중국의 산 이름 + 수양대군)

2 | 상징

(1) 상징

어떤 것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설명하는 표현 방법

- 원관념은 숨긴 채 보조관념만으로 의미를 표현한다.
- 상징의 원관념은 주로 () 것이고, 보조관념은 주로 ()에 해당한다.
- 상징은 빗대어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비유와 유사하지만, **다의적인 개념으로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비유와 구분된다. (비유 1:1) (상징 1:多)
- 상징으로 쓰이는 말은 개인이 창조한 것도 있지만, 사회적 약속으로 굳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선지 빠개기

- 2018학년도 9월 <제5수>에서 어머니의 '젓'은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하는 표현으로서, …….
- 2011학년도 수능 '경비병'은 폭력적 상황 속에서 인간 본연의 모습을 억압하고 길들이는 감시망을 상징한다.
- 2007학년도 수능 비유와 상징을 통해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① () 상징: 특정 사회에서 오랜 세월을 두고 되풀이하여 사용되어 널리 인정받는 상징

예) 십자가 → 기독교 / 비둘기 → 평화 / 백합 → 순결 / 사군자(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 지조·절개

작품 빠개기

2023학년도 고1 6월 학력평가

옥설이 차갑게 **대나무**를 누르고
얼음같이 둥근 달 휘영청 밝도다
여기서 알겠노라 굳건한 그 절개를
더욱이 깨닫노라 깨끗한 그 빈 마음

- 이항, 「설월죽(雪月竹)」 -

↳ '대나무'는 사군자 중 하나에 해당하며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

② () 상징: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상징

예) 물 → 재생, 영원, 생명 / 불 → 열정, 죽음, 소멸

작품 빠개기

2019학년도 고3 11월 수능

샤갈의 마을에는 3월에 **눈**이 온다.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靜脈)이
바르르 뚫다.

- 김춘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

↳ '눈'은 순수하고 맑은 생명력을 상징한다.

③ () 상징: 일정한 문화권에서 통용되는 상징

예) (한국에서) 흰옷 = 죽음

작품 빠개기

1997학년도 고3 11월 수능

뒤탈카노 뒤탈카노 뒤탈카노
니 흰 옷자라기만 필력거리고...

- 박목월, 「이별가」 -

↳ '흰 옷자라기'는 동양권에서 '죽음'을 상징한다.

④ () 상징: 작가가 작품 속에서 의미를 재창조하여 문학적 효과를 얻는 상징

작품 빠개기

2014학년도 고2 3월 학력평가

온 겨울의 누리 떠들다가
이제 와 위대한 적막을 지킴으로써
쌓이는 눈 더미 앞에
나의 마음은 어둠이노라

- 고은, 「속(續) 눈길」 -

↳ '어둠'의 원형적 상징은 부정적이지만 이 시에서 '어둠'은 '내면적 평화'를 의미한다.

3 | 강조

(1) 반복법

① 음운·음절의 반복

- 음운: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자음과 모음)

예 '물'의 'ㅁ', 'ㄴ', 'ㄹ'

- 음절: 하나의 종합된 음의 느낌을 주는 말소리의 단위. (한 글자)

예 '아침'의 '아', '침' ⇒ 2음절

작품 빠개기

2011학년도 고3 9월 평가원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열십자 북판에 내가 썼소.

갈래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

- 김소월, 「길」 -

↳ 'ㄱ', 'ㄹ' 음운의 반복을 통해 '길'을 강조하고 있다.

② 시어·시구·시행의 반복

- 시어: 시에 쓰인 하나의 단어

- 시구: 시에 쓰인 둘 이상의 어절이 모인 구 예 육첩방은 남의 나라 → 3어절

- 시행: 시의 한 줄

③ 통사 구조의 반복, 대구법

- 통사 구조의 반복: 시구나 시행을 이루는 특정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표현하는 방법으로, **문장 구조가 반복**되기만 하면 된다.

- 대구법: 비슷한 어조나 어세를 가진 어구를 짝지어 표현한 방법으로, **문장 구조가 나란히 반복**되어야 한다.

선지 빠개기

2022학년도 9월 [B], [C]는 **대구**를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였다.

2014학년도 3월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드러내고 있다.

작품 빠개기

2009학년도 고3 11월 수능

산 머리에 조각달 되어 님의 낮에 비추고자

바위 위에 오동 되어 님의 무릎 베고자

빈산에 잘새 되어 북창(北窓)에 가 울고자

- 작자 미상, 「춘면곡」 -

↳ '~에 ~되어 ~고자'라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④ (): 시의 각 절 끝에 되풀이되는 같은 시구.

작품 빠개기

2000학년도 고3 11월 수능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떨위랑 드래랑 먹고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작자 미상, 「청산별곡」 -

↳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라는 후렴구를 반복하고 있다.

(2) 열거법

내용적으로 연결되거나 비슷한 어구를 여러 개 늘어놓아 전체의 내용을 표현하는 방법.

- 대체로 셋 이상을 늘어놓을 때 ()으로, 같은 어구를 늘어놓을 때 ()으로 본다.

선지 빠개기

2013학년도 수능 고향에서의 삶과 관련된 소재들을 열거하고 있다.

2003학년도 9월 동질적 상황을 열거하여 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작품 빠개기

1998학년도 고3 11월 수능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 …… 어머니,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 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패,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 봅니다.

- 윤동주, 「별 헤는 밤」 -

↳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들을 각각 나열함으로써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3) 과장법

대상을 실제보다 매우 크거나 작게, 혹은 많거나 적게 표현하는 방법

작품 빼개기

2015학년도 고3 9월 평가원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여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네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

↳ 모란을 잃은 상실감이 일 년 동안 지속된다며 과장하여 표현했다.

(4) 점층법

문장의 뜻을 점점 강하게, 크게 표현하는 방법

작품 빼개기

2008학년도 고3 9월 평가원

참 오래오래, 노인(老人)의 자리말에 발은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
지요. 때를 지어 읊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읊니다.

- 박용래, 「월훈(月暈)」 -

↳ '겨울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를 점점 강하고 고조되게 표현하고 있다.

(5) 점강법

문장의 뜻을 점점 약하게, 작게 표현하는 방법

작품 빼개기

2016학년도 고3 6월 평가원

어이 못 오던다 무슨 일로 못 오던다.
너 오곤 길 위에 무쇠로 성(城)을 쌓고 성안에 담 쌓고 담 안에란 집을 짓고 집 안에란 뒤주 놓고
뒤주 안에 궤를 놓고 궤 안에 너를 결박하여 놓고 쌍비목 외걸새에 용거북 즈물쇠로 수기수기 잠갓더
냐 네 어이 그리 아니 오던다.
흔 돌이 설흔 놀이여니 날 보라 올 하루 업스랴.

↳ '너'를 가두는 대상이 '성'→'담'→'집'→'뒤주'→'궤' 순으로 점점 작아지고 있다.

(6) 영탄법

감탄사나 조사 따위를 이용하여 기쁨·슬픔·놀라움과 같은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는 표현 방법

- 감탄사: 아, 어즈버, 아으, 어스와 등
- 감탄형 어미: -는구나, -ㄴ데, -도다, -르샤(-르셔) 등
- 의문형 어미: -ㄴ가, -ㄴ고 등

선지 빠개기

2010학년도 9월 영탄적인 어조로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

2005학년도 수능 영탄적인 어조로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작품 빠개기

2014학년도 고3 11월 수능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 이형기, 「낙화」 -

↳ 영탄과 독백의 어조를 통해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7) 연쇄법

앞 구절의 끝 어구를 다음 구절의 앞 구절에 이어받아 이미지나 심상을 강조하는 표현 방법

선지 빠개기

2016학년도 수능 연쇄와 반복을 통해 리듬감이 나타나고 있다.

2015학년도 9월 대조와 연쇄를 통해 생동감을 드러낸다.

작품 빠개기

2016학년도 고3 6월 평가원

어이 못 오던다 무슨 일로 못 오던다.
너 오는 길 위에 무쇠로 성(城)을 쌓고 성안에 담 쌓고 담 안에란 집을 짓고 집 안에란 뒤주 놓고
뒤주 안에 궤를 놓고 궤 안에 너를 결박하여 놓고 쌍티목 외길새에 용거북 즈물쇠로 수기수기 줌갓더
나 네 어이 그리 아니 오던다.
흐 돌이 설흔 놀이여니 날 보라 올 하루 엽스랴.

↳ '무쇠로 성을 쌓고 성안에 담 쌓고' 등에서 구절들이 연쇄적으로 이어진 것을 알 수 있다.

(8) 대조

서로 대립되는 내용을 맞세워 강조하거나 선명한 인상을 주려는 방법

- 장단(長短), 강약(強弱), 광협(廣狹) 등으로써 대조되는 내용의 단어나 구절을 대립시켜서 표현한다.

선지 빠개기

2016학년도 수능 자연 현상과 인간의 삶을 대조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2016학년도 9월 공간의 대조를 통해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2014학년도 수능 색채의 선명한 대조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환기한다.

(9) 대비

두 가지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서로 맞대어 비교하는 방법.

- '대비'는 차이점이 두드러지기는 하지만 '대조'처럼 꼭 반대되는 속성만 두드러지는 것은 아니다.

예) Black&White → () / Red&White → ()

선지 빠개기

2015학년도 9월 흑백의 대비를 통해 회화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2014학년도 4월 시적 공간을 대비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2014학년도 3월 현실과 대비되는 화자의 소망이 반영되어 있다.

작품 빠개기

2003학년도 고3 10월 학력평가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발을 멈춘다.

젯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개나리가 망울졌다.

- 구상, 「초토의 시 1」 -

↳ 전쟁의 비극을 드러내는 '젯더미'와 희망의 의미를 드러내는 '개나리'가 대비(대조)를 이루고 있다.

4 | 변화

(1) 도치법

문장 성분의 정상적인 배열 순서를 바꿔 변화를 주는 표현 방법

선지 빠개기

2014학년도 3월 어순을 도치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한다.

2013학년도 수능 도치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낸다.

작품 빠개기

1999학년도 고3 11월 수능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영변에 약산(藥山)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 김소월, 「진달래꽃」 -

↳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에서 '아니'와 '눈물'의 순서를 바꾸어, 이별의 슬픔 속에서 느껴지는 강인함을 표현하고 있다.

(2) 설의법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표현 방법
- 처음에는 일반적인 서술문으로 표현해나가다가 결론이나 단정 부분에서 의문 형식으로 의미를 강조하는 방법이다.

선지 빠개기

2016학년도 수능 설의적인 표현을 통해 안타까움의 정서가 강조되고 있다.
2011학년도 4월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작품 빠개기

2007학년도 고3 9월 수능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分)으로 누었느냐
임금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값고자 하여도 하울 일이 없어라

- 윤선도, 「만홍」 -

↳ '누었느냐'라는 설의법을 사용하여 이는 '임금 은혜'임을 더욱 강조하는 효과를 준다.

(3) 반어법

참뜻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여 문장의 의미를 강화하는 표현 방법
- 반어법은 반어적 표현이 나오게 된 ()을 파악하고, 그 ()를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수능
운문 문학에서 반어가 정답이 될 가능성은 낮다. '의미 해석'의 문제는 언제나 출제 오류(시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선지 빠개기

2014학년도 4월 반어는 겉으로 드러난 표현 속에 감춰진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2008학년도 7월 반어를 사용하여 풍자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작품 빠개기

2014학년도 고3 4월 학력평가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 같은
심야 방송이 잠든 뒤의 전파 소리 같은
듣기 힘든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다오.
확성기마다 울려 나오는 힘찬 노래와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자동차 소리는 얼마나 경쾌하냐.

- 김광규, 「상행」 -

↳ '울음', '전파 소리'와 같은 '듣기 힘든 소리'는 사실 귀 기울여야 하는 소리이고, '힘찬 노래'와 '자동차 소리'는 사실 경쾌하지 않은 소리이다.

(4) 역설법

표면적으로는 ()되거나 부조리한 것 같지만 그 표면적인 진술 너머에서 진실을 드러내는 표현 방법
- 주로 부정적인 현실을 마음속에서 인식의 전환을 통해 이겨내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낼 때 사용된다.

※ '역설(力說)'이란 '자기의 뜻을 힘주어 말함.'이라는 뜻을 지닌다. 역설법의 '역설(逆說)'과는 다르다.

선지 빠개기

- 2014학년도 7월 역설적 표현 방식을 통해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는 화자의 태도를 그리고 있다.
2013학년도 6월 구도자로서의 자기 정립에 대한 화자의 열망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군.
2011학년도 9월(2) 설의적 표현으로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역설(力說)하고 있다.

작품 빠개기

2009학년도 고3 11월 수능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만 나는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

- ↳ '님'은 이미 시적 화자인 '나'를 떠난 상태이다. 그러나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모순된 표현이지만, 이를 통해 '님'을 향한 '나'의 그리움을 강조한다.

5 | 운율

(1) 외재율

- 음의 고저(高低), 장단(長短), 음수(音數), 음보(音譜) 따위의 규칙적 반복에 의해 생기는 운율
- (): 같거나 비슷한 음을 일정한 위치에 배치함으로써 형성되는 운율 (두운, 요운, 각운)
- (): 일정한 음보가 규칙적으로 반복됨으로써 생기는 운율 (3음보, 4음보 등)
- (): 글자 수가 일정하게 반복됨으로써 이루어지는 운율 (3·4조, 7·5조 등)

(2) 내재율

자유시나 산문시에서 문장에 잠재적으로 깃들여 있는 운율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눈부셔 눈부셔 알았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 나희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 의인법을 사용하여 대상을 표현하고 있다.

O X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내 호을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나.

긴—여름해 황망히 나래를 접고

늘어선 고층(高層) 창백한 묘석(墓石)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잠초인 양 헝클어진 채

사념(思念) 병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낮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 왔기에

길—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 김광균, 「와사등」-

▶ 활유법을 통해 공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O X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 13도
 영하 20도 지상에
 온몸을 뿌리 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의 나목(裸木)으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벌받는 자세로 서서
 아 벌받은 몸으로, 벌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그러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온 혼(魂)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짝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아아, 마침내, 끝끝내
 꽃 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 피는 나무이다

- 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 '벌'은 '겨울-나무'의 고통을 상징한다.

O X

어둠은 새를 낳고, 들을
 낳고, 꽃을 낳는다.
 아침이면,
 어둠은 온갖 물상(物象)을 돌려주지만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
 무거운 어깨를 털고
 물상들은 몸을 움직이어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금(金)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아침이면,
 세상은 개벽을 한다.

- 박남수, 「아침 이미지 1」-

▶ '어둠'은 부정적 이미지를 상징한다.

O X

산아. 우뚝 솟은 푸른 산아. 첩첩첩 흐르듯 질푸른 산아. 숲한 나무들, 무성히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등 등 산을 넘어, 흰 구름 건넌 자리 씻기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넘
 엇 골 골짜기서 울어 오는 뚝배기…….

- 박두진, 「청산도」-

▶ 영탄적 표현을 통해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O X

방 두 칸과 마루 한 칸과 말쑥한 부엌과 애처로운 처를 거느리고
 외양만이라도 남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이다지도 쑥스러울 수가 있을까

- 김수영, 「구름의 파수병」-

▶ 대상의 속성을 반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화자나 인물의 심리적 상황을 들어내고 있다.

O X

07

2013학년도 고3 6월 평가원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
 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
 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
 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 한용운, 「알 수 없어요」-

▶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한다.

O	X
---	---

08

2011학년도 고3 11월 수능

먹밤중 한밤중 새터 증뿔 개들이 시끌썩하게 짖어댄다.
 이 개 짖으니 저 개도 짖어
 들 건너 갈피 개까지 덩달아 짖어댄다.
 이런 개 짖는 소리 사이로
 언뜻언뜻 까 여 다 여 따위 말끝이 들린다.
 밤 기러기 드높게 날며
 추운 땅으로 떨어뜨리는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의좋은 그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 고은, 「선제리 아낙네들」-

▶ 유사한 구절을 병치하여 운율감을 조성한다.

O	X
---	---

09

2010학년도 고3 9월 평가원

이중에 시름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로다
 일엽편주(一葉片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알라
 - 이현보, 「어부단가」-

▶ 음악적 리듬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O	X
---	---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밀등 잘리어도 새순은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라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라

고통과 설움의 땅 뿔뿔 지나서
 뿌리 깊은 별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 고정희, 「상한 영혼을 위하여」-

▶ 대구적 표현을 통해 시상을 강조하고 있다.

O X